

## 【토론 1】

### 미래 지역사회거버넌스와 여성의 리더쉽

2005년 10월 28일

농림부 여성정책과장 김 미 숙

#### □ 참여정부의 전략적 과제

• ‘거버넌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’(OECD 편저, 행정자치부 행정관리국 2004년 발간)

- 공공부문·기업·시민단체의 역할 재조명과 방향설정
- 거버넌스는 국가차원의 지배구조, 지역·국가·세계 등 거시적 차원의 지배구조 문제 조명
- 지배구조란 의사결정의 권한을 누가가지고 이를 어떻게 견제 내지 감시하는가의 문제.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중요한 이슈
- 21세기에 들어서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환경이 크게 변화, 국가차원의 지배구조에 상당한 변화 초래
- 즉 기술진보의 가속과 세계 경제의 통합에 따라 기회와 위험이 병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경제 사회의 역동성은 협력적 지배역량의 배양과 상호보완적 관계의 선순환 구조임
- 이런 의미에서 주체발제자의 세계화시대에서 국가가 세계체제와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, 국내의 다양한 세력들과의 지배연합이 전략적 과제이며 거버넌스는 그 대안이라는 주체발제자의 의견에 공감

#### □ 농업·농촌발전과 거버넌스

- 농업농촌부문에서는 시민사회와의 협치 강조, 시장접근은 초기단계
- 그 예로 각종 농업정책자문기구인 위원회에 위촉직 위원을 두도록 법으로 규정하고

있음

- 2005년부터는 정책품질관리 차원에서 특히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수요자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의무화 하고 있음
- 또한 여성의 관점이 반영되도록 즉 성인지적인 정책수행을 위해 성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있음. 2004년부터 시범사업 시작

#### □ 거버넌스 발전과 여성농업인의 참여

- 우리 농업의 주종사자중 여성농업인은 52%를 차지
- 특히 04년 여성농업인총조사에 따르면 시설채소, 과수, 화훼는 63.3%, 축산의 경우는 52.4%를 부부가 비슷하게 농업노동에 기여
- 여성농업인의 자질과 능력이 농가경영체의 경영능력을 결정하는 주요변인임
- 또한 여성농업인은 농촌문화의 지킴이로서 지역사회 유지와 발전을 위해 핵심적인 집단임
- 여성농업인의 농업농촌정책에서의 주류화는 정부정책의 기본전략.
-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여성농어업인육성법과 중장기계획을 마련 시행중

#### □ 거버넌스와 농림부 여성농업인정책

- 국가차원의 거버넌스에 참여토록 제도화
- 위원회 여성참여 할당제 실시(05년 현재 36%)
- 지자체 차원의 참여목표도 병행 추진중(06년 목표 32%)
- 농업부문 경제중심체인 협동조합의 여성참여도 목표제를 추진중임
- 협동조합 여성분과위원회 설치(05년 337개-> 10년 전 조합으로) - 조합원 가입, 대의원 선임, 임원선임 각각 30%, 30% 700명 목표
- 농촌종합개발과 관련한 마을위원회와 개발사업 참여자 교육에서도 여성할당제 실시
- 농촌개발교육에서의 여성우대 20%
- 농촌마을 여성이장 30%이상 확대목표
- 창업농과 후계농업경영인 선발에서의 여성우대제
- 농촌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양성평등문화 확산 시책과 캠페인 중요

□ 지방자치의 가속화와 지역거버넌스에 여성의 참여확대의 중요성

- 2005년부터 중앙정부 사업의 지자체로의 대폭이양중
- 광역, 기초단위의 여성농업인협의회 설치 추진
- 여성의 자질함양과 참여 제도화가 중요
- 농정관련 여성위원 교육 도입(05년), 할당제와 우대제 실시
- 지역거버넌스에 여성농업인의 참여가 전제돼야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 추진이 가능함
- 이를 위한 여성농업인단체의 자발적 노력과 캠페인이 필요
- 특히 지역사회에서 여성리더쉽 함양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과 농촌지도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
- 따라서 내셔널거버넌스와 지역사회거버넌스의 유기적 결합을 전략적 과제로 삼아야 함

□ 농업·농촌부문의 뉴거버넌스 창출

- 농촌여성과 여성농업인의 참여 마인드와 역량 제고가 선결과제
- 여성을 실체적 존재에서 중심역량으로가 목표
- 정부는 여성리더쉽 활성화를 위한 기획의 제공, 교육과 훈련, 네트워크 형성 등의 3가지 전략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2차 중장기계획(06~10년)을 수립중임